

胞에 對한 文獻研究

車恩伊 · 姜政秀*

Abstract

Reference Research of Bao(胞)

Cha Eun-yea · Kang Jung-soo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Taejon Universit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studies related to bao(胞).

1 Bao(胞) is also called as uterus, zizang(子臟), baogong(胞宮), xieshi(血室), dantian(丹田), mingmen(命門), baomen(胞門), and guanyuan(關元). It is one of the extraordinary organs. Both of man and woman have it.

2 Man controls qi(氣), so dantian(丹田) which is considered xieshi(血室) for man doesn't have it's own shape and woman controls blood so xieshi(血室) has it's own shape.

3 Bao(胞) is in front of rectum, back of bladder, between guanyuan(關元) and 氣海. shape of 女子胞 is up side down triangle, the lower one branch is neck of uterus and the upper two branches are oviduct. Inside of Bao(胞) is vacant.

4 Bao(胞) is the origin of making essence and blood, and the place of completing essence, energy, and spirit(精氣神). Bao(胞) controls menstruation and also conceives and brings up embryo in woman.

5 Bao(胞) is related with channels of Du, Ren, Chong, and Dai directly and also related with twelve main meridians. Especially channels of Ren, and Chong control Bao(胞) the most importantly.

6 Bao(胞) is related with kidney, liver, and spleen very intimately.

I. 緒 論

胞는 子宮, 子臟, 胞臟, 胞宮의 異名으로도 불리우며 <素問·五藏別論>¹⁾에서는 “腦髓骨脈膽女子

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也 故藏而不瀉 名曰奇恒之府”라고 하여 奇恒之府中的 하나이다.

中醫書籍²⁾에 女子胞는 子宮이라하여 精氣가 出納하고 妊娠을 해서 胎兒가 자라는 器官이며, 主要機能은 月經을 만들고 胎兒의 孕胎와 生育을 主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1)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42, 1985.

2)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2-963, 1997.

管하는것으로 그 生理過程이 복잡하여 衝脈, 任脈, 帶脈 및 十二經脈과 直間接的인 關係를 맺고 있으며, 腎 心 肝 脾 등의 臟腑와도 密接하게 關聯이 있다고 하여 女性爲主의 說明을 하고 있다.

그러나 許³⁾의 《東醫寶鑑》을 보면 總論部分인 內景篇에 胞門을 만들어서 “胞者一名赤宮 一名丹田 一名命門 男子藏精施化 婦人繫胞有孕 俱爲生化之原 非五行也 非水亦非火 此天地之異名也 象坤土之生萬物也”라고하여 婦人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男子에게도 있는 共通用語로 使用되고 있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胞를 단지 婦人에게만 局限시켜서 理解하려는 傾向은 止揚하여야 하며, 胞 또는 子宮이 奇恒之腑이며 生命의 誕生에 重要な 臟器임에 不拘하고 歷代 文獻研究가 豊富하지 않은 편이다.

이에 著者는 胞의 名稱, 形態, 機能, 經絡, 臟腑와의 關係에 대한 內容을 中心으로 胞의 生理에 대하여 考察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胞의 名稱

胞는 子宮, 子臟, 胞宮, 血室, 丹田, 命門, 胞門, 關元, 子處 등으로 불리고 있다⁴⁾. 그중 子處가 《靈樞·五色篇》⁵⁾에 처음 보이며, 子宮과 子臟이 《神農本草經》에 보인다.

子宮은 《神農本草經·紫石英》에 “女子風寒在子宮”이라하고, 그후에 《諸病源候論·無子候》에서는 “然婦人狹痰無子, 皆由勞傷血氣, 冷熱不調而受風寒, 客於子宮, 致使胞內生病,”이라 하였다. 《備急千金要方·林朶湯胞湯》에서는 “...本爲婦人子宮內有此惡物令然”이라 하였다. 以後 《婦人大全良方·求嗣門》, 《格致餘論·受胎論》, 《婦人規》, 《類經》 등의 明清代 以後의 醫書에서 모두 子宮이라는 명칭을 광범위하게 쓴 것을 알 수 있다⁶⁾.

子臟은 《神農本草經·槐實》에는 “子臟急痛.”, 《金匱要略·妊娠病脈證并治》에서는 “婦人懷妊六七月, 脈弦發熱, 其胎愈脹, 腹痛惡寒者, 少腹如扇, 所以然者, 子臟開故也”라 하였으며, 《甲乙經》에서는 “婦人子臟中有惡血”이라 하였다. 이외에도 《諸病源候論·風虛勞冷候》에서는 “若風冷入於子臟, 則令臟冷, 致使無兒.”라하여 子宮을 奇恒之府에 屬한다고 보는 以外에 後世로 내려오면서 臟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形態는 腑와 같으나 機能은 臟과 같다는 데에서 그 理由를 찾아볼 수 있다.

胞宮은 《婦人大全良方·妊娠傷寒方論·黃龍湯》에서 “熱入胞宮, 寒熱如瘡”이라 하였고, 《景岳全書·婦人規》에서는 “凡婦人懷妊者, 其血留氣聚, 胞宮內實”이라 하였다. 胞宮이라는 名稱은 後世의 醫書에서 많이 採用되고 있는데, 이는 女子胞의 胞와 子宮의 宮자를 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血室이라는 이름은 《傷寒雜病論》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熱入血室”이라는 病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血室의 解釋에 대해 3가지 學說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子宮이라는 뜻으로 《類經附翼·求正錄》의 “故子宮者, ...醫家以衝任之脈盛於此, 則月事以時下, 故名之曰血室.”이라 한 곳에서 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衝脈을 가리키는 것으로 王冰과 《女科經綸》에 나오듯 “衝爲血海, 諸經朝會, 男子則運而行之, 女子則停而止之, 謂之血室.”이라는 곳에서 알 수 있으며, 마지막 하나는 肝臟을 意味하는 것으로 《傷寒來蘇集·陽明脈證上》의 “血室者, 肝也. 肝爲藏血之臟, 故稱血室.”이라는 文句에서 알 수 있었다. 《傷寒論》의 熱入血室이라는 單語에서부터 血室은 子宮을 意味한다는 것이 比較的 適切한 것 같다⁷⁾.

以外에도 子宮은 子處⁸⁾, 赤宮, 丹田, 命門, 胞門, 關元⁹⁾ 등으로 불리웠다. 이는 胞, 子宮의 意味가

6) 羅元愷: 前揭書, pp. 15-16.

7) 羅元愷: 中醫婦科學, 北京, 知音出版社, pp. 15-16.

8)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226, 1985.

9) 許浚: 東醫寶鑑 一卷, 大田, 연합의서, pp. 399-401, 1997.

3) 許浚: 東醫寶鑑 一卷, 大田, 연합의서, pp. 399-401, 1997.

4) 羅元愷: 中醫婦科學, 北京, 知音出版社, pp. 15-16.

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226, 1985.

단지 西洋醫學에서의 婦人子宮만이 아닌 精氣神을 貯藏하는 胞의 意味가 多분히 있음을 內在한다.

2. 胞의 位置와 形態

子宮의 位置에 對해 明代의 張景岳은 《類經附翼·三焦包絡命門辨》¹⁰⁾에서 “子宮, …居直腸之前, 膀胱之後.”라 하였고, 形態에 對해서는 《景岳全書·婦人規·求嗣類·辨古》¹¹⁾에서 朱丹溪의 말을 인용하여 “陰陽交構, 胎孕乃凝, 所藏之處, 名曰子宮, 一系在下, 上有兩岐, 中分爲二, 形如合鉢. 一達於左, 一達於右.”라 하였으니 이는 子宮에 對하여 概略的인 模樣에 對해 描寫한 것으로 子宮은 三角形을 거꾸로 세워 놓은 것 같으며 한 가지는 밑을 향하니 子宮頸部이고, 위쪽으로는 두개의 가지가 벌어지니 이는 輸卵管을 일컫는다. 子宮의 內部가 비어 있는 模樣에 對해 “形如合鉢”이라 하였다¹²⁾.

《東醫寶鑑》¹³⁾에서는 臍下三寸에 四寸크기의 方圓이 脊柱의 兩腎間에 있는 것이라 말하였고, 단순히 子宮의 概念이 아닌 男女에 모두 있는 것으로 보아 婦人의 子宮概念보다는 丹田의 仙道概念으로 보았다.

3. 胞의 概念과 機能

1) 精血의 生化之原

胞에 對해 《東醫寶鑑》¹⁴⁾에서 “胞者…主男子藏精施化 婦人繫胞有孕俱爲生化之原 非五行也 非水亦非火 此天地之異名也 象坤土之生萬物也 夫人之始生也”라하여 단순히 女子에게만 있는 子宮으로 보지 않고 男子와 女子에 모두 있는 것으로 男子에 있어서는 藏精施化하는 것으로, 女子의 境遇에 있어서는 孕胎하는 것으로 生化之原이라 하였다. 胎가 자리잡는 곳이라 하였고, 《內經》¹⁵⁾에서는

“胞者藏於陰而象於地 名曰奇恒之府”라하여 奇恒之腑에 속한다 하였다. 따라서 胞는 膀胱의 胞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男精女血을 貯藏하고 찡는 五行 어디에도 屬하지 않는 生化之原이 된다.

景岳은 前代의 著書와 論述을 폭넓게 考察하여 《類經圖翼·求正錄, 質凝錄》《景岳全書·傳忠錄》에서 命門學說을 綜合, 整理하여 命門의 意味는 生命의 先天, 後天이 出入하는 立命之門으로서 男子의 施泄, 女子의 攝納이 이루어지는 門이며 胎元이 出하는 門이고, 그 部位는 男子의 藏精, 女子의 繫胞가 歸着되는 곳인 兩腎之中, 直腸의 前, 膀胱의 後, 關元과 氣海의 中間이며 男女 모두 所有하여 男精, 女血이 保存되어 子息이 이를 말미암아 生하는 子宮이라고 하였다¹⁶⁾. 따라서 胞와 마찬가지로 男子와 女子가 다 가지고 있고 生殖을 할 수 있는 生命의 根源을 包括하는 意味로 子宮이 使用되고 있다.

胎兒妊娠의 段階에서도 ‘胞’라는 단어가 使用되는데, 劉昉¹⁷⁾은 “謂之胞 已爲正陽 陰包之也”라 하고 陳自明¹⁸⁾도 같은 내용을 引用하였으며 薛立齋는 註에서 “已 正陽也 而陰能包之 陰與陽更用事故也 已者孟夏之月 於卦爲乾 純陽用事 故詩謂之正月 正月者 正陽之月也 陰方用事 而爲物之主 則雖正陽亦在所包而退聽焉”이라 하여 胞의 글자 속에 있는 已火는 正陽이 되어 陰으로 감싸지는데 이는 純陽을 陰이 감싸는 形局이다. 여기에 肉邊이 붙어서 胎兒가 안에 陽氣를 內包하고 陰氣가 밖에서 감싸는 形象을 의미한다¹⁹⁾. 韓²⁰⁾은 胞와 胎를 비교하면서 胞는 陽으로 無形이며 胞의 뜻이 月邊에 包이니 物을 싸고 있는 것이 胞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胎兒妊娠의 段階로 ‘胞’라는 單語를 使用

10)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pp. 267-272, 1992.

11) 김영남 역: 國譯 景岳全書 四卷, 서울, 一社, pp. 114-116, 1992.

12) 羅元愷: 中醫婦科學, 北京, 知音出版社, pp. 15-16.

13) 許浚: 東醫寶鑑 一卷, 大田, 연합의서, pp. 399-401, 1997.

14) 許浚: 東醫寶鑑 一卷, 大田, 연합의서, pp. 399-401, 1997.

15) 洪元植 精校: 前揭書(素問), p. 42.

16)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p. 348, 1993.

17) 劉昉: 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2 0~23.

18) 陳自明: 婦人良方大全(卷十 胎教門), 文光書局有限公司, pp.7-8.

19) 김병수·강정수: 宇宙生成과 胎兒發生의 相關關係에 對한 研究, 서울, 東醫生理學會誌, (19), p. 92, 1999.

20) 韓南洙: 石塘理氣韓醫學, 서울, 醫聖堂, 1992, pp.664-666.

하였다는 것은 胞의 意味가 巳火를 陰氣가 감싸고 있어서 精血을 胞宮에서 쥘어주는 役割을 함으로써 人體의 精氣神이 健全하게 完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醫寶鑑》²¹⁾의 次序에서 보면, 胞門이 <內景篇>²²⁾에 五臟六腑의 說明 다음에 나오는 것은 臟腑의 概念인 精氣神을 藏한 후에 精氣神의 完成을 胞宮에서 한다는 意味를 類推할 수 있다. 또, 許浚은 胞를 赤宮, 丹田으로 說明함으로써 道家의 內功修鍊하는 場所로 表現하고 있다.

2) 胞爲血室

血室이라는 이름은 《傷寒雜病論》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熱入血室”이라는 病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²³⁾. 血室의 解釋에 대해 3가지 學說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子宮이라는 뜻으로 《類經附翼·求正錄》의 “故子宮者，…醫家以衝任之脈盛於此，則月事以時下，故名之曰血室。”이라 한 곳에서 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衝脈을 가리키는 것으로 王冰과 《女科經綸》²⁴⁾에 나오듯 “衝爲血海，諸經朝會，男子則運而行之，女子則停而止之，謂之血室.”이라는 곳에서 알 수 있으며, 마지막 하나는 肝臟을 意味하는 것으로 《傷寒來蘇集·陽明脈證上》의 “血室者，肝也。肝爲藏血之臟，故稱血室.”이라는 文句에서 알 수 있었다. 羅²⁵⁾는 《傷寒論》의 熱入血室이라는 單語에서부터 血室은 子宮을 意味한다는 것이 比較的 適切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血室은 子宮의 意味와 衝脈, 肝의 意味가 混在되어 있는 것으로 位置는 子宮을 說明하지만 機能상으로는 衝脈의 主要機能이고 이러한 모든 一連의 過程은 모두 血에 대한 것으로 調節을 肝에서 한

다고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血室이라는 것은 血이 머무는 곳이며, 榮衛가 흘러 만나는 곳이 衝脈이 된다. 衝脈은 血海가 되어 諸經을 朝會하고 男子는 運行시키고, 女子는 머무르게 한다. 男子는 運行시키기 때문에 쌓이지 않고 女子는 쌓여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흘러 넘치니 이것을 月水라 하였으니 그 모양이 달의 차고 이지러짐과 같기 때문이다²⁶⁾. 滑伯仁²⁷⁾도 역시 衝脈은 血海를 主管하고 任脈은 胞胎를 主管하기 때문에 婦人의 血室이 되어 月經이 온다 하였다.

《素問·上古天真論》²⁸⁾에도 “女子二七 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라하여 奇經八脈의 하나인 任脈과 衝脈이 점차 充盛하여져서 天真之氣가 내려오면 비로소 孕胎를 할 수 있다 하였으며 許²⁹⁾는 衝任脈이 胞宮에서 起하여 經絡의 海가 됨을 說明함으로써 衝脈이 血海가 되고 단지 위에서 敘述하였듯이 男子는 氣運을 運行시킴으로 머물르는 바가 없고 女子는 停止하여 그치게 함으로 머물러서 積이 되어 月經이 生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類推하여 보면 男子는 氣를 主하여 運行을 爲主로 하여 血室인 丹田이 無形으로 되어있으며, 女子는 血을 主하여 停止를 爲主로 하여 血室인 胞宮이 有形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3) 女子胞의 機能

《類經·臟象類·奇恒臟腑藏瀉不同》에 敘述하길 “女子之胞，子宮是也，亦以出納精氣而成胎孕者爲奇.”라고하여 子宮은 奇恒之府에 屬하며 精氣를 出納하며 胎兒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 部分을 羅³⁰⁾는 定期的으로 出納하는 機能으로 理解하여서 婦人의 月經이 一箇月에 한 번씩 하는 周期로 설명을 하였고, 또 妊娠은 十箇月동안 藏하다가 胎兒를 瀉(出)한다고하여 子宮의 重要한 機能은 “藏”에 있으며, 胞脈이 子宮에서 陰血을 聚하는 것

21) 許浚: 東醫寶鑑 一卷, 大田, 연합의서, p. 7, 1997.

22) 《東醫寶鑑》은 內景篇이 가장 앞부분에 나와있어서 精氣神에 대한 敘述을 먼저하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의 基本思想에 道家의 精氣神 概念이 상당히 內包되어 있는 것이며, 特異할 點은 다른 書籍에서는 胞門이 婦人科에 들어갔으나 東醫寶鑑만이 胞門을 總論編格인 內景篇에 넣었다는 事實이다.(著者注)

23) 金賢濟·洪元植: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p. 122, 1983.

24) 蕭琪編: 女科經綸,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 1, 1984.

25) 羅元愷: 中醫婦科學, 北京, 知音出版社, pp. 15-16.

26) 許浚: 東醫寶鑑 一卷, 大田, 연합의서, pp. 399-401, 1997.

27) 李樞: 篇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p.48, 1989.

28) 洪元植 精校: 前掲書(素問), p. 11.

29) 許浚: 前掲書, p. 400.

30) 羅元愷: 中醫婦科學, 北京, 知音出版社, pp. 15-16.

은 藏精하여 孕胚를 만들 준비이며 孕胚가 안되면 月經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亦以出納精氣而成胎 孕者爲奇.”라고 하였다. 子宮은 《內經》에서 女子胞라고 稱하여 奇恒之府에 屬한다고 하였으니 그 形狀은 腑와 흡사하고 機能은 臟과 흡사하여 實際로는 臟과 腑의 作用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³¹⁾. 따라서 女子胞의 機能은 크게 月經의 機能과 胎兒를 孕育하는 두 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1) 月經을 主함

月經은 女性에게 있어서 一定한 年齡이 되면 自然的으로 發生하는 週期的인 子宮出血로 一般的으로 每月에 한 번씩 行하는 까닭에 月信, 月事, 月水, 信水 등으로 불리워진다. 李時珍은 《本草綱目·人部婦女月水篇》에 설명하길, “女子, 陰水也, 以血爲主. 期血上應太陰, 下應海潮, 月有發育, 潮有在朝夕, 月事一月一行, 與之相符, 故謂之月水, 月信, 月經. 經者常也. 有常子也.”라고 하여 女子의 月經과 달과 潮水와의 相關關係를 天人相應의 觀點에서 설명하였다.

月經은 女子胞가 主하여 女子胞가 血을 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張景岳의 《景岳全書·婦人類》에 이른바, “經血爲水谷之精氣, 和調于五藏 灑陣于六腑, 乃能入于脈也. 凡其源源而來, 生化于脾, 總統于心, 藏受于肝, 宣布于肺, 施泄于腎, 以灌溉一身…婦人則上爲乳汁, 下當血海而爲經脈.” 라고하여 月經이 臟腑, 氣血, 經絡이 胞宮에 作用하여 產生된다고 하였다. 女子胞가 月經을 發生하게 하는 가장 重要한 物質은 腎에서 藏하는 精이다. 《素問·奇病論》³²⁾에 曰 “胞脈者, 樂于腎”이라하니 腎氣가 充盛하면 天癸가 이르러 衝任二脈의 氣血이 旺盛하여 血海가 充滿해지고 月經가 때에 應하여 아래하는 것이다. 만약에 男女媾精하여 精이 습하면 成孕되고 그러면 月經이 停止한다. 만약에 受胎가 되지 아니하면 胞宮은 마땅히 去舊生新의 作用으로 舊血을 排出하니 이것이 月經이 된다. 바로 《血證論·男女異同論》에 이른바, “女子胞中之血, 每月一換, 除舊生新, …此血不去, 便阻機化”라

고 한 것이다³³⁾.

(2) 胎兒를 孕育함

女子胞의 重要한 機能은 胎兒를 妊娠하고 기른다는 것이다. 《內經》에서는 男女의 腎氣盛하면 天癸가 이르러 女子는 任脈이 通하고 太沖脈이 盛하여 月事以時下하고 男子는 精氣溢瀉하여 陰陽이 습하는 까닭에 能히 子息이 있다고 하였다³⁴⁾. 明代의 張景岳도 《類經》에서 역시 “男女, 陰陽之儀象也, 陰陽交媾, 胎臨乃凝, 所藏之處, 名曰子宮.”이라하여 子宮이 胎兒를 孕胎하는 곳임을 明確히 指摘하고 있다. 胞宮이 胎兒를 臨育하려면 氣血의 供給에 依支하게 된다. 氣血은 胞脈으로 말미암음이니 沖任二脈이 바로 이것이다. 아래로 胞宮이 養胎하게 한다. 李挺의 《醫學入門》에 이른바, “女子之血, 實所以生生化化之機也. 方其未成胎也, 則此血周流而不息, 應期而至 及其既成胎也, 則此血營養于內, 以護其胎.”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³⁵⁾

子宮은 奇恒之府이며 그 機能이 藏하기도 하고 瀉하기도 하니 가운데가 비어서 能히 月經을 排泄하고 胎兒를 分娩하니 腑의 “瀉而不藏”과 恰似하다. 月經期間과 妊娠期間은 臟의 “藏而不瀉”과 恰似하다. 《類經·藏象類·奇恒臟腑藏瀉不同》에 敘述하길, “女子之胞, 子宮是也, 亦以出納精氣而成胎臨者爲奇.”라 하니 子宮이 비록 藏하고 瀉하나 역시 藏이 爲主임을 알 수 있다. 胞脈이 子宮에서 陰血을 聚하여 精을 藏하여 胎를 만들 準備를 하는데 受精을 하지 못하면 月經으로 排出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月經은 生殖機能의 表現이며, 胎兒를 孕育할 수 있는 子宮機能의 表現인 되는 것이다³⁶⁾.

4. 胞와 經絡과의 關係

1) 胞와 奇經과의 關係

(1) 衝脈

衝脈은 胞中에서 始作하고 任脈과 함께 會陰에서 나오고 그 앞으로는 足少陰經과 함께 배꼽 위

31) 羅元愷: 中醫婦科學, 北京, 知音出版社, pp. 15-16.

32) 洪元植 精校: 前揭書(素問), pp. 176-177.

33)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2-963, 1997.

34) 洪元植 精校: 前揭書(素問), p. 11.

35)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2-963, 1997.

36)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4-966, 1997.

의 橫骨 大赫 氣穴 四滿 中注와 만나고 任脈의 陰交穴에 이르러서 다시 腎經의 盲俞와 만나 위로 올라가고 腎經의 商曲 石關 陰都 通谷 幽門 을 타고 咽喉部위에 이르러서 頭面의 모든 經絡에 들어가 별도로 口脣을 돌아서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衝脈은 “上滲諸陽”하게 된다. 그 分枝의 하나는 뒤로 脊椎을 뚫고 督脈과 서로 上通하니 腹中之脈이라 稱한다. 하나는 氣街를 따라 體表로 나온다. 사타구니 안쪽을 타고 과후에서 두가지로 나뉘고 하나는 直接 발바닥으로 가고 한가지는 비스듬이 엄지 발가락 끝에서 足厥陰脈과 通하게 된다³⁷⁾. 그러므로 衝脈은 下灌諸三陰이라 한다. 衝脈에는 穴자리가 없고 다른 經絡과 交會하는 穴은 있다. 任脈과는 會陰 陰交에서 만나고 胃經과는 氣街에서 만나고 腎經과는 橫骨 大赫 氣穴 四滿 中注 盲俞 幽門 商曲 石關 陰都 通谷에서 만난다. 衝脈은 위로 모든 陽經에 들어가고 아래로는 三陰經에 들어가니 十二經과 相通하게 된다. 衝脈과 足陽明胃經은 氣街에서 만나서 後天水穀의 精微에 滋養을 받게 된다. 腎經과는 다시 先天의 精氣를 받게 된다. 肝經과는 서로 絡하여 肝血이 衝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衝脈은 다시 肝血의 迎香을 받게 된다. 衝脈과 任脈은 같은 根源으로 서로 迎香하며 《靈樞·逆順肥瘦》³⁸⁾에 이르기를 “夫沖脈者，五臟六腑之海也”라고 한 것처럼 衝脈은 胞中에서 始作하여 氣街로 나오고 앞으로는 胸으로 나오고 뒤로는 背로 가서 위로 頰頰으로 출하고 모든 陽經에 注入되며 아래로는 발로 가서 모든 絡으로 들어가므로 十二經脈의 海가 된다. 그 出入은 모두 少陰經과 함께 가기 때문에 血海가 된다. 이것이 바로 衝脈이 血海가 되는 것이고 氣穴을 머금고 있으며 胞宮이 바야흐로 經穴을 내보내고 胎兒를 기르고 그 生理 機能을 完成하게 된다. 이른바《景岳全書·婦人》³⁹⁾ “經本陰血也，何臟無之。唯臟腑之血皆起沖脈 而沖爲五臟六腑之血海，故經言太沖脈盛

則月事以時下，此可見衝脈爲月經之本也”이다.《醫學衷中參西錄·治女科方·溫沖湯》에 이르기를 “是以女子不育 多責之沖脈…衝脈無病 未有不生育者”라 하였다. 이것으로 보건대 衝脈은 胞宮이 月經을 나오게 하고 胎兒를 기르는 重要한 物質의 基礎가 된다⁴⁰⁾.

(2) 任脈

任脈은 胞中서 일어나고 會陰에서 나온다⁴¹⁾. 任脈이 陰脈의 統綱이 되고 精, 津, 液, 血을 포함하는 人體의 陰液은 모두 任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任脈을 陰脈之海라고 한다. 이는 陰血을 축적하고 調節하는 機能이 있습니다. 任에는 妊養의 뜻이 있다. 任脈은 陰脈之海가 되어 陰液을 축적하여 嬰태의 根本이 되니 任脈이 統暢하면 月經기능이 正常이고 月經機能이 正常이면 胎兒를 기를수 있게 된다. 全身의 陰血은 任脈을 따라 胞宮으로 모여 胎兒를 기르기 때문에 王水이 가로되 “任主胞胎”라고 하였다. 《醫述·女科原旨》에 “任者妊也，屬陰脈之海，此人生養之始也”라하였다. 이로서 任脈에 氣穴이 通하면 女子胞가 月經을 방생하고 胎兒를 기르는 生理의 基礎가 된다.

위의 內容을 綜合하면 沖任脈과 女子胞는 密接한 關係가 있고 臟腑機能이 正常이고 氣血이 充盛하여 沖任脈으로 들어가면 沖任脈이 通하여 女子胞가 비로소 經血을 내보내고 胎兒를 기르게 된다⁴²⁾. 《素問·上古天真論》⁴³⁾에 “任脈 衝脈 皆奇經脈也 腎氣全盛 沖任流通 經血漸盈 應時而下…然衝爲血海 任主胞胎 二者相資 故能有子”라하였고, 《類證治載·卷八》에 “任主胞胎 衝爲血海 二脈流通 臟腑之血皆會于此”라고 한 것이 모두 衝任脈이 同時에 作用을 하여서 子息을 生産하고 臟腑의 血도 二脈이 同時에 流通하여야 모이게 되는 것이다.

(3) 督脈

40) 王琦 主編：中醫臟象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pp. 963-965, 1997.

41) 大韓東醫生理學會編：東醫生理學，서울，慶熙大學校 出版局，p. 197, 1993.

42) 王琦 主編：中醫臟象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pp. 963-965, 1997.

43) 洪元植 精校：前揭書(素問)，p. 11.

37) 大韓東醫生理學會編：東醫生理學，서울，慶熙大學校 出版局，pp. 200-201, 1993.

38) 洪元植 精校：前揭書(靈樞)，pp. 188-189.

39) 김영남 역：國譯 景岳全書 四卷，서울，一社社，pp. 6-9, 1992.

督脈은 總督의 意味가 있으며 모든 陽經을 統轄하는 機能이 있다. 督脈은 胞中에서 일어나 任脈과 함께 會陰에서 나온다⁴⁴⁾.

督脈의 脈氣와 全身의 陽經과는 모두 關係가 있으며 陽經脈의 統綱이 된다. 그러므로 陽脈之海라 한다. 督脈은 任脈과 함께 胞中에서 나오며 하나는 몸의 뒤로 가서 一身의 量을 走罐하며 하나는 몸의 앞으로 가서 一身의 陰을 走罐하고 陰交에서 만난다. 그 經氣는 順化하여 陰陽을 統括하고 氣血을 調節하여 胞宮에 經, 孕, 産의 生理活動을 維持하게 한다⁴⁵⁾.

(4) 帶脈

帶脈은 季肋에서 始作하여 몸을 엮는 것이 허리띠와 같아서 帶脈이라 이름한다. 帶脈은 14椎에서 出하여 季肋의 끝의 足厥陰 肝經의 期門穴에서 始作되어 허리주위를 한번 돌고 期門에서 肝經과 相通하며 足少陽膽經과 五樞維道에서 交會한다⁴⁶⁾.

張子和는 “惟帶脈起少腹季肋之端 乃長門穴是也 環身一周 無上下之源 絡胞而過 如束帶之身”라고 하였고, 唐容川은 《血證論·崩帶》에서 敘述하길, “帶脈下系胞宮 中束人身 居身之中央” 그 機能은 모든 經絡을 묶고 經脈에 氣血의 循行을 正常的으로 維持시키며 沖任督은 腹脇을 지나 臍傍을 끼고 氣衝으로 들어가 帶脈에 屬하고 衝脈에 絡한다. 沖任督의 三脈은 한곳에서 일어나 다른 流注를 가며 모두 帶脈에 연결된다. 帶脈을 통과함으로써 十二經五臟六腑와 關聯을 갖게 된다. 古人들은 이런 關係를 江河와 湖水의 關係에 比較하였고 서로 影響하고 調節하는 作用이 있으며 女子胞의 正常生理機能을 維持하게 한다. 그 다음으로 帶脈은 胎元을 굳건히 지키고 胞宮의 正常位置를 維持시키는 作用이 있다. 《傳書主女科·帶下》⁴⁷⁾曰; “帶弱則胎易墜 帶傷則胎不牽” 그러므로 帶脈은 女子

胞 關係가 있으며 沖任督 三脈에 氣血을 調節하고 胞胎를 固攝한다⁴⁸⁾.

2) 胞와 正經과의 關係

女子胞와 沖, 任, 督, 帶脈은 直接的 關係가 있고 衝脈은 十二經의 海가 되고 任脈은 陰經의 海가 되고 督脈은 陽經의 海가 되고 帶脈은 모든 經絡을 묶기 때문에 女子胞와 十二經脈 사이에는 間接的인 關係가 있다. 十二經의 氣穴은 衝脈 任脈 督脈을 통과하여 胞宮안으로 들어가고 經血의 根源이 되며 胎兒를 기르는 根本이 된다. 이외에 女子胞의 胞脈과 胞絡은 十二經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素問·奇病論》⁴⁹⁾에 曰, “胞絡者 系于腎” 이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腎이란 足少陰經脈을 가리키는 것으로 女子胞의 絡이 腎經을 통과한다는 意味이다. 《素問·評熱病論》⁵⁰⁾에 曰, “月事不來者 胞脈閉也 胞脈者 屬心而絡于胞中”라고 하여 心經의 支脈은 胞宮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敘述하고 있다. 女子胞는 直間接的으로 十二經脈과 相通하고 각 臟腑의 陰精氣血을 이어받아 經血을 나오게 하고 胞胎를 기르고 그 生理機能을 完成하게 된다⁵¹⁾.

5. 胞와 臟腑와의 關係

1) 胞와 腎과의 關係

腎은 先天之本이며 元氣之根으로 藏精과 髓를 主한다. 이는 先天生殖之精을 藏하고 또 後天水穀之精氣를 藏하는 것이다. 《素問·六節藏象論》⁵²⁾에 曰, “腎者主蟄 封藏之本 精之處也”라고 하여 精氣가 人體를 構成하는 基本物質이 되며 이러한 身體의 精粹가 腎臟에 貯藏되어 있음을 表示한다⁵³⁾. 腎 中의 精氣의 盛衰는 人體의 生長發育과 生殖機能의 變化를 主宰한다. 生理的인 概括은 腎陰과 腎陽의 兩方面에서 敘述된다. 腎陰은 一身의 元陰으로 全身의 臟腑, 組織, 器官을 滋養, 濡潤한다.

44)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pp. 196-197, 1993.

45)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3-965, 1997.

46)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pp. 202-203, 1993.

47) 傳書主: 傳書主女科, 臺北, 力行書局有限公司, pp. 139-143.

48)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3-965, 1997.

49) 洪元植 精校: 前揭書(素問), pp. 176-177.

50) 洪元植 精校: 前揭書(素問), pp. 123-124.

51)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3-965, 1997.

52) 洪元植 精校: 前揭書(素問), pp. 36-37.

53) 羅元愷: 中醫婦科學, 北京, 知音出版社, pp. 19-20.

腎陽은 一身의 元陽으로 臟腑, 組織, 器官을 推動, 溫照한다. 以外에 腎은 水를 主하여 身體內의 水 液代謝를 觸診하며, '腎主納氣'와 '腎主骨生髓'의 機能이 있다. 腎은 女子胞와 密切한 關係가 있는데, 主要 表現은 天癸의 至不至와 月經과 育孕의 兩方面이다. 《素問·上古天真論》⁵⁴⁾에 曰, "女子七歲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之,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而時下, 故有子;…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라고 하였다. 그러면 天癸란 무엇인가? 明代 張景岳의 《景岳全書·陰陽篇》⁵⁵⁾에 보면 "元陰者, 卽無形之水, 以長以立, 天癸是也, 強弱系之, 故亦曰元精."이라 하였고, 《類經·藏象類》에는 더욱 進一步하여 "故天癸者, 言天一之陰氣耳, 氣化爲水, 因名天癸, … 其在人身, 是爲元陰, 亦曰元氣, 人之未生, 則此氣蘊于父母, 是爲先天之元氣… 第氣之初生, 眞陰甚微, 及其既盛, 精血乃王, 故女必二七, 男必二八而后天癸至, 天癸既至, 在女子則月事以時下, 在男子則精氣溢瀉, 蓋必陰氣足而后精血化耳."라고 하였다. 景岳의 說明은 天癸가 先天에서 生成된다는 것으로 腎精氣의 盛衰에 支配를 받는다. 만약 腎精이 充盛하면 天癸는 반드시 이르러 任脈을 通하게 하고 太衝脈을 盛하게 促進시켜 月經을 調節하고 生育能力을 促進시킨다. 만약 腎中의 精氣가 점점 衰弱해지면 天癸도 역시 점점 竭하여 그치게 되니, 月經도 역시 不來하고 生育能力도 없어지게 된다. 卽 腎精은 天癸를 化生하고, 天癸는 女子胞를 作用시키고 男女媾精하여 胎를 이루게 한다. 따라서 腎은 精을 藏하고 胞脈은 腎에 매여 있다. 腎은 生殖을 主하여 만약에 先天腎氣가 不足하거나 或 早婚多産, 房勞傷腎으로 冲任이 不固하면 쉽게 月經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無定期하여 진다. 만약에 腎陰이 虧損되고 精血이 不足하여 胞脈이 失養하면 月經이 늦고 月經過少, 閉經, 不妊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만약에 陰虛內熱하여 熱伏冲任으로 迫血妄行하면 月經先期, 崩中漏下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만약에 腎陽不足으로 氣化失常하여 上不能

溫照脾陽하고 下不能溫養胞脈하면 經行泄瀉, 宮寒不妊 등의 症狀 發顯한다. 腎陰이 衰微하여 不能溫化水濕하면 帶下와 子臟 等症이 發顯한다⁵⁶⁾.

2) 胞와 肝과의 關係

肝은 肝藏血과 疏泄을 爲主로하여 體陰而用陽한 臟器이다. 능히 一身의 氣機를 調暢하며 氣血의 運行과 津液의 正常的 運行을 促進하여 疏泄機能을 達成한다. 肝은 血의 臟器이며 血液과 血液量을 調節하며 全身氣血의 運行에 肝은 중요한 意味가 있다.

女子胞의 主要 生理의 效能이 바로 血의 貯藏과 疏泄이다. 全身各部의 血을 生化하고 周身하며 女子에 있어서 下注하여 血海가 되는 것이 月經이다. 단지 그 血을 藏하는 作用과 肝의 疏泄機能에 있어 肝氣는 疏通되어야하고 鬱滯되는 것을 싫어하며 肝氣가 疏通하면 血脈이 流通되고 經侯또한 마찬가지이다⁵⁷⁾. 肝氣가 疏泄을 失하면 肝藏血의 機能에 影響을 미치고 月經異常에 이른다. 따라서 肝과 女子胞의 關係는 月經方面에 影響을 미친다.. 肝血不足 冲任이 空虛하면 月經量이 少하고 經行이 늦고 閉經이 된다. 肝氣가 鬱結하면 氣滯하고 冲任이 失調하면, 氣滯血於하여 月經의 期間이 不定하고 痛經, 閉經, 經氣情志異常 등의 症狀이 發生한다. 肝鬱化火로 迫血妄行하면 月經先期, 量多, 崩漏, 經行吐衄 등의 症狀이 發顯한다. 綜合하여 말하면 肝主疏泄, 主藏血이 直接 女子胞의 血의 藏瀉에 影響을 미치고, 또한 月經적 發生에도 影響을 미친다⁵⁸⁾.

腎은 先天의 根本이나 女子는 經. 帶. 胎. 産의 生理의인 特殊性이 있으므로 肝이 先天이 된다. 女子 七歲에 腎氣가 盛하고 齒更髮長하며, 十四歲에 天癸가 이르고 任脈이 通하고 太衝脈이 盛하며 月經이 規則的으로 下行하는데 月經이 시작함은 腎氣의 盛함과 天系가 이틈외에도 任脈의 通함과

56)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6-967, 1997.

57)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6-967, 1997.

58)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6-967, 1997.

54) 洪元植 精校: 前掲書(素問), p. 11.

55) 金영남 역: 國譯 景岳全書 一卷, 서울, 一中社, pp. 4-8, 1992.

太衝脈의 盛함이 그 必要條件 된다. 青春期 특히 生育期에는 더욱 女子의 生理特徵과 病理機轉이 모두 肝의 機能과 關係가 있으니 이는 腎과 肝이 母子關係로 乙癸同源하여 衝任脈이 모두 肝腎에 歸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女子의 生長發育에서 青春期前의 成熟段階에는 腎의 作用이 主가 되나 月經이 시작되면서 부터의 生育期에는 肝의 作用이 主가 된다. 이에 後代醫家들은 肝의 位置를 높여 先天의 位置에 놓게 된 것이다. 이는 肝의 作用이 腎의 作用을 대신한다는 意味가 아니며 肝의 作用이 腎이 하지 못하는 作用을 분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肝氣의 疏泄作用이 正常的으로 이루어지면 沖任이 화개하게 되고 이는 月經이 規則的으로 進行되는 것과 胞宮의 胎兒 臨育에 重要한 條件이 된다. 胞宮과 沖任, 督帶脈은 서로 密接하게 上關되어 있으며 衝任兩脈 함께 胞宮에서 일어나므로 胞宮이 月經과 胎兒의 臨育能力을 갖게 되는 것은 이맥이 통합과 太衝脈의 성함이 서로 긴밀하게 배합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대개 任脈은 胞胎를 主하고 衝脈은 血海가 되는데 任은 妊養의 意味가 있으며 任脈은 一身의 陰脈을 總任하여 全身의 陰經에 대해 調節作用이 있고 陰脈의 海가 된다. 따라서 精, 血, 津, 液 등 一身의 陰液은 모두 任脈이 맡은 바가 되며 衝脈과는 胞宮에서 함께 일어나니 “異名而同體”가 된다. 또한 衝脈은 全身氣血運行的 요충이 되어 十二經 氣血이 모이는 곳이 되므로 十二經의 氣血을 조절하는 作用이 있어 月經의 本이 된다. 衝脈의 氣가 旺盛하면 血海가 만일하여 하행하므로 月經이 되고 妊娠 후 正經시에는 胎兒를 滋養하고 분만시후에는 상행하여 乳汁가 된다. 衝脈은 肝에 歸屬되며 衝脈의 氣街 盛하여 流通되려면 肝의 疏泄에 의지해야 하므로 肝氣의 疏泄이 正常的으로 이루어져야만 血脈이 流通하게 되는 것이다. 肝은 藏血하는 機能이 있어 血量에 대한 調節이 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肝血이 充實하면 衝脈에 下注하여 血海가 溢하게 되고 이에 月經이 시작된다. 女子는 血이 根本이 되므로 經帶胎產의 生理的인 과정이 모두 血을 基礎로 일어난다. (女子以血爲根本) 또한 婦女는 經帶胎產의 과정에서 血을 傷하게 되므로 肝이 먼저

답을 안게 되어 肝의 機能에 迎香을 미치고, 肝의 機能이 正常的으로 維持되지 못하면 婦人病을 일으키게 된다. 肝의 疏泄機能은 沖任脈의 機能을 통해 女子의 經帶胎產의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女子以肝爲先天의 根據가 된다⁵⁹⁾.

3) 胞와 脾와의 關係

脾는 後天의 本이며, 主血, 統血의 作用을 한다. 脾主運化하고 精微를 運送하며 위로는 心을 받들어서 血로 化하고 이것이 生血之原이 되어 血脈이 充盛하면 下注衝任脈하여 經水가 된다. 《女科經綸》⁶⁰⁾에 “婦人經血屬心脾所統”의 說明이 이런 것이다.

脾統血은 中氣를 主하고 그 氣는 升을 主하니 氣는 능히 血을 統攝할 수 있다. 脾氣가 建旺하면 血液循環이 健全하며, 脾氣가 虛弱하여 血의 統攝機能이 失調하면 血液의 循環이 常道을 벗어나서 外溢하게 된다. 女子胞와 脾와의 關係는 주로 經血의 化生과 經血의 固攝 兩方面으로 나눌 수 있다. 脾와 胃는 서로 表리가 되어 함께 生化之源이 된다. 胃는 水谷之海가 되어 多氣多血之府가 되어 足陽明胃經이 下行하여 沖脈과 더불어 氣街에 會合을 하므로 “沖脈隸于陽明”이라 하였다. 胃中에 穀氣가 盛하면 血海가 滿盛하여 月事가 時에 下하고, 受胎하면 胎兒가 길러지게 된다. 만약 脾虛하여 氣血生化가 不足하면 血海가 空虛하여 月經이 늦고 量이 적으며 色淡하거나 閉經, 不妊 等の 證이 보인다. 脾氣가 虛하여 統攝이 안되어 沖任이 不固하면 月經이 빠르고 量이 많고 또는 崩漏가 된다. 만약에 脾가 健運의 機能을 喪失하여 濕生痰하여 痰濕이 胞中에 凝聚하였으면 역시 閉經, 不妊, 帶下 등의 症狀이 보인다. 脾主升清하여 臟器를 固托하면 胞宮도 堅固하여 진다. 만약에 脾氣가 下陷하여 升降이 無力하여지면, 臨床的으로 胞宮下垂가 보이며 甚하면 脫出한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脾氣의 生血, 統血, 運濕, 升清, 固托이 女子胞의 機能과 상당히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⁶¹⁾.

59)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pp. 261-263, 1993.

60) 蕭埴編: 女科經綸,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p. 18-21, 1984.

III. 結 論

以上과 같이 胞에 대한 資料를 調査한 結果 다 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胞는 子宮 子臟 胞宮 血室 丹田 命門 胞門 關元 等の 名稱이 있으며 男子와 女子가 共히 있 는 奇恒之府이다.

2. 男子는 氣를 主하여 血室인 丹田이 無形으로 되어있으며, 女子는 血을 主하여 血室인 胞宮이 有形으로 되어있다.

3. 胞의 位置는 直腸之前, 膀胱之後, 關元氣海之 間이며, 女子胞의 有形的인 形態는 三角形을 거꾸 로 세워 놓은 것 같으며 한 가지는 臍을 향하니 子宮 頸部이고, 위쪽으로는 두개의 가지가 벌어지 니 輸卵管이다. 내부는 비어 있다.

4. 胞의 機能은 精血의 生化之原으로 人身의 精 氣神을 完成하는 곳이다. 女子胞의 機能은 月經을 주하고 胎兒을 孕育한다.

5. 胞는 衝脈, 任脈, 督脈, 帶脈과 直接的인 關聯 을 맺고 있고, 十二經脈과도 直間接的으로 關係를 맺고 있다. 특히 衝脈과 任脈이 가장 重要하게 胞 를 調節한다.

6. 胞는 腎, 肝 脾과 密接한 關聯을 갖고 機能을 修行하고 있다.

이와같이 胞의 內容을 定理하였으며 앞으로는 道家的인 精氣神의 觀點에서 胞의 生理機能에 대 한 研究가 더욱 必要하리라고 思料된다.

IV.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 學研究院, 1985.
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 學研究院, 1985.
3. 羅元愷: 中醫婦科學, 北京, 知音出版社,

4. 許浚: 東醫寶鑑 一卷, 大田, 연합의서, 1997.0
5.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 大學校 出版局, 1993.
6. 李挺: 篇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7. 박찬국: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8.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 社, 1997.
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0. 김영남 역: 國譯 景岳全書 一卷, 四卷, 서울, 一中社, 1992.
11. 蕭頊編: 女科經綸,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 社, 1984.
12. 傅青主: 傅青主男女科, 臺北, 力行書局有限公 司.
13. 劉昉: 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14. 김병수 · 강정수: 宇宙生成과 胎兒發生의 相 關關係에 대한 研究, 서울, 東醫生理學會誌, (19), 1999.
15. 陳自明: 婦人良方大全(卷十 胎教門), 文光書 局有限公司.
16. 韓南洙: 石塘理氣韓醫學, 서울, 醫聖堂, 1992.
17. 金賢濟 · 洪元植: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61)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966-967, 1997.